

# 광주 남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고발전 비화...파장 확산

### 남호현 의장 등 6명, 의원 4명 광주지검에 수사 의뢰 상임위원장 1명 상대 '직무정지 가처분'도 신청 예정

광주 남구의회가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촬영'의 여파로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가운데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일각에선 선출된 상임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어 법적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10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검검찰청에 남호현 의장 등 남구의원 6명의 이름으로 다른 남구의원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4일 개최된 남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선출 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촬영'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남구의회는 4일 오전 제9대 후반기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오후에 기획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으려 했다.

그러나 사회건설위원장 선출 후 기획총무위원장 투표 과정에서 '불법 촬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남구의회는 산회를 선포,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후 일부 의원들이 '불법 촬영'을 인정하자 남구의회는 다음 날인 5일 간담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하려 했으나 물의를 빚은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

렇다 할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뒤이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으나, 한 의원이 "지난 4일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있었던 투표용지 촬영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해당 의혹을 받는 의원 4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의혹 당사자들이로부터 반발이 잇따랐다.

이후 '불법 촬영'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뜻을 함께한 의원들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이날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일부 의원의 경우 투표를 통해 추대된 기획총무위원장을 상대로 '직무정

지 가처분'을 낼 계획이어서 법적 공방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남구의회 사무국은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두 상임위원장의 경우 선출이 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표결이 끝난 뒤 의장이 선포를 하면 효력이 있다"며 "불법 촬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선포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의 여파가 고발전으로 비화되면서 의정 활동엔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역 다른 기초의회들의 경우 원

구성을 마쳐 이미 업무보고 청취 등 후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했으나, 남구의회는 지난 9-17일로 예정된 제303회 임시회를 개최조차 못했다.

이 탓에 남구의회는 안팎으로부터 "불수륙 기관"이라는 눈총을 사고 있다.

의명을 요청한 한 남구 공무원은 "그간의 공직 생활 동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이한 일'이 펼쳐지고 있다"며 "‘무용론’ 등 기초의회를 향한 지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소속 의원 스스로 만든 일임을 알고 자성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주성학기자



**돌봄이웃들에 전달할 삼계탕** 초복(15일)을 앞두고 광주 북구 운암3동행정복지센터에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복달임 나눔 행사'가 열렸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과 직원들이 관내 돌봄이웃들에게 전달할 한방삼계탕과 열무김치 등을 포장하고 있다. /김영근기자

## 광주·전남 최대 77mm 장맛비...광주천서 인명 피해

### 70대 신발 주우려다 참변...나무 쓰러짐 등 신고도

광주·전남에 최대 77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1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남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광주·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구례 77mm, 여수 69mm, 완도 68.5mm, 담양 53mm, 곡성·광양 50mm, 해남 47mm, 영광 46mm, 광주 43mm 등의 순이었다.

많은 비로 인해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오후 5시11분께 광주 동구 내남동 광주천에선 70대로 추정되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광주천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던 중 벗겨진 신발을 주우려다 물에 빠진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비로 인해 광주천의 수위가 높아졌고, 물살도 강해진 탓에 A씨가 빠져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전남 소방당국은 각각 4건, 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나무 쓰러짐 6건, 도로 물고임 2건, 담장 붕괴 1건, 주택 침수 우려 1건, 공사 현장 철재 흔들림 1건이었다.

여객선 통제 및 국립공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도 이어졌다.

전남도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5항로 81척 중 7항로 10척을 제외한 나머지 운행을 정상화했으나, 국립공원 6개소 중 3개소(무등산 동부, 다도해 해상·서부)의 출입은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

광주시도 전남부터 하강도로 2개소, 둔치주차장 11개소의 출입을 막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 장맛비는 오는 14일까지 내리다 그치길 반복하겠다.

11일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등 많은 지역은 80mm 이상, 나머지 광주·전남은 5-40mm로 예보됐다. /정은정기자

## '80억대 U대회 선수촌 사용료' 청산법인·市 분담하나

### 조정 불성립 불구 재판부 '권고' 따르기로 잠정 합의 내주까지 결정...최종 불발뎀 내달 8일 재판 재개

지난 2015년 광주 U대회 당시 선수촌 사용료 부담을 두고 재판 중인 청산법인과 광주시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권고한 '분담'에는 따르기로 잠정 합의했다.

재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이번 소송이 마무리되면 청산법인 해산과 함께 U대회 잔여재산 약 425억원의 배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청산법인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인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청

구' 소송의 조정을 최근 진행했다.

이번 조정은 재판부가 지난 5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소송의 쟁점인 89억원에 달하는 광주 U대회 선수촌 사용료 부담을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 다하는 게 아닌 적당한 선에서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분담 비율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에 재판부는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적당한 선을 제시하는 '조정 같은 결정'을 했다.

사용료를 분담하는 것에 앞서 잠정 합의한 원고와 피고 모두 오는 14일까

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은행에 동결된 U대회 잔여재산 약 425억원에 대한 배분도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 같은 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청산법인 해산과 잔여재산 배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선수촌 사용료 부담에 대한 분쟁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다음 달 8일 재개된다.

한편 저예산·고효율을 표방한 광주 U대회 자체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선수 숙소 사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이 장기화 돼 조직위원회 청산 절차의 첫 발을 대회 8년 만인 지난해에서야 떼었다. /안재영기자

## 지역농협 조합장 등에 뇌물 공여 4명 재판대에

### 승진·채용 청탁 명목...檢, 징역 6월-2년 각각 구형

검찰이 승진 또는 자녀 채용을 위해 광주 한 지역농협 조합장 등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이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0)씨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지역농협 직원으로 상무 승진을 위해 조합장

의 아내에게 6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B(76·여)씨와 C(79)씨는 A씨와 같은 곳에 근무하는 자녀들이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각 1천만·2천만원을, 이곳 농협의 지점장이었던 D(62)씨는 상임이사 승진을 위해 3천만원을 조합장 또는 그 아내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모두 이같은 공소 사실을 인정

함에 따라 검찰은 이날 구형까지 마쳤다.

형량을 밝히기 전 검찰은 재판부에 "같은 조합장에게 동일한 명목으로 돈을 건넨 지역농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며 A씨에게 징역 6개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등은 모두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이뤄진다.

한편 A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조합장 측은 돈을 다시 되돌려 줘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광주경찰청은 이 조합장에 횡령 등 다수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며 별도 수사를 중이다. /안재영기자

GREEN GOONG PRIME EVER 120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